

기계설비건설업계를 “위하여!!!”



박봉식
건설경제신문 산업1부장

건배사의 계절이다. 연말연시를 즈음해 이곳저곳에서 건배사들이 쏟아진다. 예전 송년 모임은 12월 하순에 몰렸다. 요즘은 11월 말부터 시작이다. 서둘러 모임을 마치고 가족과 차분하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자는 취지다. 실상은 기간만 늘었다. 11월부터 시작해 12월 말까지 이어진다. 신년회도 마찬가지다. 개인 시간을 존중해 주자는 의미에서 인사회 등을 1월 중·하순에 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1월도 모임의 연속이다. 2개월 동안 술자리가 이어진다. 건배사가 빠질 수 없다. 한겨울에 때 아닌 진달래, 개나리, 해당화가 피고, 오바마도 오고, 중국어, 불어까지 등장한다.

건배의 유래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중세인들은 술을 마실 때 정령이 몸 안으로 들어와 재앙이 온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시기 전에 ‘짹’하는 종소리를 내면 마귀를 쫓을 수 있다고 믿었다. 로마시대에는 같은 병에 든 술은 나눠 마심으로써 독이 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설도 있다. 유래야 어떻든 함께 잔을 비우는 행위를 통해 믿음을 확인하고 잔이 부딪치는 소리를 통해 공동

체임을 확인한다. 바늘 가는 데 실가 듯 따라가는 것이 건배사이다. 밋밋하고 산만한 자리에 활력을 돋우는 윤희유 역할을 한다. 응원과 기원을 담아 신뢰와 공감을 돈독하게 하기도 한다.

건배사는 유행과 시대상을 반영한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건배’나 ‘000을 위하여’ 등 밋밋한 건배사와 더불어 ‘개나발(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나가자(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하여)’ 등 건설적(?)인 삼행시가 선보였다. ‘우리는 하나다’같은 다분히 선동적인 건배사와 ‘우리가 남이가’같은 지역감정을 배경으로 한 것도 등장한다. 어느 술자리에서든 한번쯤 나오는 ‘위하여’는 ‘위하여(興)’ ‘위하야(野)’ 등으로 응용하기도 했다. 정권 교체기에는 ‘남행열차’가 유행해 입맛을 씹씹하게 했다. ‘남다른 행동과 열정으로 차기 정부에 줄 잘 서자’, ‘남은 기간 행동 조심하고 열심히 눈치보다 차기 정권까지 살아남자’는 뜻이라고 한다.

건배사는 ‘꿈보다 해몽’이다. 유행하는 삼행시 형태가 그런 부류다. 생똥맞은 단어를 제시하고

한 자 한 자에 색다른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다. '해당화(해가 갈수록 화려하고 당당하게 살자)', '당나귀(당신과 나의 귀한 만남을 위하여)' 등이 이런 부류다. 분위기나 모임의 성격에 맞지 않는 해석을 하면 분위기를 '싸하게'하는 것은 물론 한순간에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낙인찍힌다. 오바마는 애초 '오 바라만 보아도 좋은 마이 프렌드'였다. 그러나 공식 자리에서 '오빠 바라만 보지 말고 마음대로 해라'는 해석을 내려 입방아에 오른 것은 물론 옷까지 벗는 초대형 사고가 터지기도 했다. '오직 바라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이뤄지길', '오직 바라만 봐도 마음이 훈훈해진다' 등 해석도 많은데 말이다.

기계설비건설인들의 송년 모임이 유쾌하지만은 않다고 한다. 술자리 자체도 많이 줄었지만, 불경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다. 가는 올해가 힘들지만 다가오는 해는 더 두렵기 때문이리라. 예전에는 올해 잘 버텼으니 내년에는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고꾸라지기 시작할 때만 해도 침체의 골이 깊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간도 이렇게 길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았다. 경기는 일정한 주기로 부침을 거듭한다는 학습효과 탓이다. 이번은 달랐다. 바닥이 없다. 날개도 없다. 바닥 아래 지하실이 있고 지하는 몇 층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한다.

산업의 틀이 바뀌었다. 건설경기 침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1980년대 고도성장을 시작한 건설은 10년간의 성장기를 지나 1988년부터 성숙기에 진입한 것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분석하고 있다. 10년 이상 투자가 정체됐고 2010년 이후 감소세인 점을

고려하면 성장성숙기를 지나 정체성숙기로 접어들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시장규모의 정체 △제품 혁신 속도의 둔화 △높은 경쟁 강도 △치열한 가격경쟁 △수익성 하락 등으로 정의된다. 제조업 기준이지만 지금 우리 건설산업에 나타나는 현상과 다르지 않다. 산업의 틀이 바뀌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셈이다.

불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설비를 포함한 건설산업의 경영환경과 시스템 등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불황을 극복하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과거 성장을 이끌었던 핵심 동력들이 거꾸로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도 받아들여야 한다. 변화를 인지하고 그에 맞게 체질을 바꾸고 적응해야 한다. 과거의 관행과 기억을 벗어 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변화한 환경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생존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수많은 기업은 성장을 못 해서가 아니다. 진화하지 못 해서다.

내년도 녹록치 않다.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예상하고 있다. 두렵기는 하지만 막연한 기대를 하던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냉철하게 한 해를 정리하고 비장하게 새해를 맞아야 하는 때이다. 송년의 건배사도 달라져야 한다. 지난 2012년 선호하는 건배사 1위에 올랐던 '너나 잘 해'는 기계설비건설업계의 송년 및 신년회 건배사로선 적합하지 않을 듯하다. '너와 나의 잘 나가는 새해'는 허언(虛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배사는 진부하지만 '위하여'로 제안한다. 반드시 해석을 달아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하면 된다, 여러분 힘내세요!'라고, 을미년을 맞는 기계설비건설업계를 "위하여!!!" 